



캔버스가 된 무형의 공간 광섬유로 빛은 바람의 길

강태환 이아서 개인전
홀로그램 필름 등 활용
높이 4m 대형 설치 등
친숙함과 낯설음 경계

정을 밟고 있는 강 작가의 광섬유 작업은 2016년부터 시작했다. 공간을 캔버스 삼아 투명한 광섬유를 밀도감 있게 뿌려놓으며 무형을 유형으로 바꾸어놓는 '드로잉 설치'를 펼친다. 하나의 점에서 시작돼 선, 면으로 확대되며 3차원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빛을 뿜어내는 얇은 광섬유를 이용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강태환 작가. 제주도립미술관이 기획한 '2019 영 앤 이머징 아티스트'로 선정돼 '휴(休)'란 이름으로 설치전을 이어가고 있는 그가 예술공간 이아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제주대 미술학과를 거쳐 현재 홍익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하며 박사과

이같은 그의 작업을 두고 김주옥(예술학)은 "규칙적인 광섬유의 나열과 그 안에서 신기루처럼 희미하게 반짝이는 빛은 우리에게 계속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가느다란 빛들이 풍기는 아슬아슬한 위기감과 현실 속 존재하는 일탈의 순간적 신비를 동시에 선사한다"며 "불현듯 일상 속 전시장에서 예고 없이 나타나는 잠깐의 빛의 체험으로 유토피아적



강태환의 '비움 공간' (부분). 현재 제주도립미술관에 설치된 작품이다.

질서에 대한한다"고 평했다.

'생각치 못한 경계'란 제목을 단 이번 개인전에는 기존에 써온 광섬유만이 아니라 홀로그램 필름, 네온 플래시를 활용해 약 4m 높이에 이르는 대형 설치 작품 등을 선보인다. 강 작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속 친숙함과 낯설음의 경계에서 생

겨나는 바람이 지나가는 길, 숨 쉬는 공간을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전시는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다. 강 작가는 가나아트센터·동화약품·가송재단이 주는 2018가송예술상, 2009~2010년 제주도미술대전 연속 대상 경력이 있다.

전신회화사 sunny@halla.com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 가동

제주도감사위 권고 따라
법조·회계 등 13명 구성
이달 28일부터 본격 논의

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검토위 가동은 지난 1월 공개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토위는 문예재단이 제주시 중앙로 재밋섬 건물 매입해 조성할 계획이던 '제주아트플랫폼'(가칭) 사업과 관련 그동안 제기된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매매 계약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 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는다.

문예재단에 따르면 이날 첫발을 댄 검토위에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건축사와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체육위 소속 의원들은 최종적으로

불합 의사를 밝히면서 검토위 명단에서 빠졌다.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고 이달 28일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예재단 관계자는 "일각에서 문예재단이 방향을 정해놓고 검토위를 운영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백지상태에서 추진 여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신회화사

문화가 쏠리

제주·청주·중국 미술 교류전

지난 3월 제주시 갤러리비오톱에서 열렸던 제주·청주교류전이 이달엔 청주로 향했다.

이달 20일까지 갤러리청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류전은 제주·청주만이 아니라 중국이 더해졌다. '공통분모-표류'란 이름으로 제주에서 활동하는 강해경 김경기 김해근 박선희 박훈일 안병근 양미경 이미선 임재영 임춘배 등 10명을 비롯 청주 11명, 중국 14명이 각기 다른 시선으로 빛어낸 작품을 펼쳐놓고 있다. 전시명에 붙인 '표류'는 예술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광활한 창작의 바다로 떠나야 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제주합창단 '그래도, 사랑'

제주도립 제주합창단이 수능일인 이달 14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그래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기획 연주회를 펼친다.

이날 공연에는 안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는 박선화 이화여대 교수를 객원지휘자로 초청해 한국가곡, 세계의 노래, 가요와 뮤지컬로 가을빛이 묻어나는 음악을 선사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이수인의 '별', 나운영의 '아 가을인가', '인도의 라가', '집시의 애가', '사랑하기 때문에', '살짜기 읊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메들리 등으로 짜여졌다. 귀에 익은 곡을 합창음악으로 들을 수 있다. 관람료 무료.

플로이드아트홀 렉처콘서트

예술기획 플로이드가 클래식 음악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문철의 렉처콘서트를 기획했다.

'음악그리기'란 이름을 단 이번 행사는 바흐에서 라벨까지 위대한 음악가와 그들이 남긴 명곡, 바이올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토크형식의 살롱콘서트다. 이달 16일부터 총 9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의 플로이드아트홀에서 유료로 진행된다. 플로이드아트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이달 17일부터는 채기선의 '한라산-이어도를 꿈꾸다' 초대전도 이어간다. 문의 010-3361-8919.

콤파살롱 원도심 라이브쇼

제주시 삼도2동 문화예술거리에서 열린 콤파살롱(대표 윤성재)이 '제주원도심 라이브쇼 시즌2'를 펼친다.

제주원도심 라이브쇼는 2016년 제주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을 알리고 응원을 보내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로 당시 21팀이 2개월간 릴레이 공연을 벌였다. 이번 시즌 2에는 싱어송라이터 이소(11월 15일),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16일), 김수하재즈그룹(22일), 시크릿코드(29일)등 4팀이 차례로 출연해 콤파살롱(제주시 관덕로 6길 6번지)에서 오후 7시부터 무대를 이어간다. 064)721-0884.

詩(시)로 읽는 4:3 (34)

취우(翠雨)

정찬일

봄비 맞습니다. 누가 급히 흘리고 갔나요. 밀들 무너져 내린 잣담에서 밀려나온 시리 조각. 족대 아래에서 불에 타 터진 시리 두 조각 호우머니 속에서 오래도록 만지작거립니다. 손이 시린 만큼 시리 조각에 온기가 듭니다. 온기 전해지는 길에서 비 젖는 듯이 소리 혼자 듣는 삼밭구석입니다. 푸른 덧잎에 맺힌 빗방울 속이 푸릅니다.

이 봄비 그치면 취우 속에 가만히 들어 한 밤 한 낮을 꼬박 잠들겠습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고, 빛 속에 숨었던 얼굴들 다 드러나고, 누구도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진저리치는 생으로 불거진 물집 하나 서러운 적으로 붉게 물든 열매 하나조차도 투명하게 사그라지는

내게 와서 내가 되지 못한 눈빛들이, 돌을 뚫고 깨부수던 말들이, 견고한 나무의 길로 위장했던 내 비린 상처들이, 어둠을 혼자 견뎌내던 새들조차도 흔들리며 다 흩어지겠습니다.

이 봄비 그치면 취우 속에 가만히 들어 몸으로 번지는 비취색 나뭇잎 하나 배후로 삼아 한 밤 한 낮을 꼬박 잠들겠습니다. 단 한 번도 따뜻한 적 없는 시리 조각에 잠겨 한 밤 한 낮을 꼬박 잠들겠습니다.

주머니 속 시리 두 조각, 긴 세월 지나도 맞닿아 치는 소리 잇몸 시리게 쨍쨍거립니다. 이 봄비 그치면 취우 속에 가만히 들어 한 밤 한 낮을 꼬박 잠들겠습니다.

잃어버린 마을 '삼밭구석'의 아픔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치유의 고장임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주먹을 쥐고 고통을 견뎌온 주민들은 12월경 큰눈이 내리면서 마을이 얼어붙었다. 푸른 잎에 매달린 빗방울이다. 곧, 여름비, 녹우(綠雨)를 말한다. 시리는 '시루(떡이나 쌀 따위를 찌는 데 쓰는 둥근 질그릇)'의 방언(강원, 경상, 전남, 제주)이다.

안덕면 동광리는 무풍이웃, 조수재, 사장밭, 간장리, 삼밭구석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중산간 마을이었다. 삼밭구석은 삼을 재배하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3당시 46가호의 주민들이 거주

하던 임씨 집성촌이었다. 1948년 11월 중순 이후 토벌대의 초토화작전이 이루어지면서 마을은 모두 파괴되었으며 주민들은 12월경 큰눈이 내리면서 마을이 얼어붙었다. 푸른 잎에 매달린 빗방울이다. 곧, 여름비, 녹우(綠雨)를 말한다. 시리는 '시루(떡이나 쌀 따위를 찌는 데 쓰는 둥근 질그릇)'의 방언(강원, 경상, 전남, 제주)이다. 안덕면 동광리는 무풍이웃, 조수재, 사장밭, 간장리, 삼밭구석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중산간 마을이었다. 삼밭구석은 삼을 재배하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3당시 46가호의 주민들이 거주

"20억 범위 내 2020제주비엔날레 추진을"

최근 실시된 제주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2회째인 2020제주비엔날레 투자 계획이 조건부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이번에 참여 작가 80여명, 100여점 규모로 비엔날레를 치르겠다고 도비 20억원 투자 계획을 올렸다. 이같은 계획은 재상정 끝에 20억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

라는 조건부 결정이 나왔다. 앞서 2017년 제1회 제주비엔날레에는 도비 16억원이 쓰였다.

도립미술관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이를 반영한 중기계획을 세우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중기계획에는 2020년 19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개년 투자 계획이 들어있다.

전신회화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농촌! 그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재창조!!

제5회 제주 농어촌체험 페스티벌

2019 11.16(토) ~ 17(일) 2일간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광장

16일 (토)

13:00~13:30 명도양 나무관동쪽곶이도만들기

13:40~14:10 소갈리 목공예행(휴대폰거치대)

14:20~14:50 정수리 양화제행

15:00~15:30 수원리 테우배모형만들기

15:40~16:10 조수리 옛날 장작! 고구마 썰기(구워먹기)

16:20~16:50 무릉리 초코렛과자만들기

17일 (일)

11:00~11:30 신흥리 동백공예제행

11:40~12:10 온평리 소라피리만들기

12:20~12:50 가시리 우드버닝

13:00~13:30 신흥리 순수간 천연염색

13:40~14:10 하례리 강굴빵 샌드위치

14:20~14:50 하포마 강굴빵만들기

김장 담그기 show와 함께하는 체험(with 돌베고기)

시간: 17일(일) 오후2시 선착순 30명 사전접수(772-5505) 및 현장접수(행사본부석)

다들바 치즈 구이

소라 구이

떡새우 구이

소떡, 산적, 오징어 등

*각 마을 부스 상설 체험 운영

*무료체험쿠폰 증정 (선착순 1,200명)

문의 772-5505

*모든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